

아동의 죽음 이해의 반응 탐색 - 그림책 읽기를 통한 사례연구

Exploring Children's Reactions In Understanding Of Death - A Case Study Through Reading Picture Books

이란,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Ran Lee(iran370@hanmail.net), Eunja Hyun(hyunej1@skku.edu)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죽음 이해 반응을 그림책 읽기 활동을 통해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 만 9살 아동 참여자 4명이 한 참여자 가정에서 총 4회에 걸쳐 모임을 하고 그림책 읽기와 관련 활동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이 탐색 되었다. 그 결과, 이야기에 대한 인지적 이해에 각자의 종교적 가정이 반영되었다. 만약 이야기가 자신들의 가정과 맞지 않은 경우, 그들은 다양한 이해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참여자 아동들은 그림책 이야기를 통해 죽음 관련 기억들을 상기하고 자신의 상실 경험과 사회적 사건에 그 이야기를 적용하였다. 나아가 아동들은 도서를 읽고 난 후 오히려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는 죽음 관련 도서들이 참여자 아이들에게 삶을 향한 열정을 표현하도록 돕고 최선으로 자신의 삶을 살도록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에도 독서하는 동안 전개된 죽음에 대한 이해를 세부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첫 그림에 비하여 독서 후 두 번째 그림에서 삶의 기쁨이 더욱 밝은 색깔로서 자세히 표현되었다. 이 같은 삶을 향한 열정은 아동이 창작한 시어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죽음 관련 그림책 읽기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전개하고 삶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는 과정이며 아동에게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최선으로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과정임이 드러났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적 제안이 제시되었다.

■ 중심어 : | 죽음 그림책 | 종교적 가정 | 삶을 향한 열정 | 죽음 교육 | 사례연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ildren's reactions in the process of reading books dealing with death. As a result, there was a reflection of their religious assumptions. The participants interpreted the stories based on their belief systems. If the stories did not match with their assumptions, they used another strategy. Also, it is indicated that they recalled death-related memories and applied those stories to their own loss experiences and social events. Furthermore, the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ir own everyday lives rather than immersing in death itself. It means that death-related stories help the participants express their passion towards life and resolve to live their lives to the utmost. Contrary to their first drawings before reading books, their second drawings contained the joy of living and reflected the details of death they developed while reading books. Also, the colors they used in their second drawings were brighter than the previous ones. Their passionate attitude towards life above was equally shown in their poems as well. In conclusion, reading death stories turned out to be a process in which children develop and reflect on their understanding of death. Abundant opportunities to express their own feelings are offered. Furthermore, it is showed that death stories can help the children love their lives and provide a strong will for their living sincerely. Based on the results, some educational suggestions were provided.

■ keyword : | Picture Books Dealing with Death | Religious Assumption | Passion to Life | Death Education | Case Study |

1. 서론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동들에게 매우 어려운 도전임이 틀림없다. 죽음 개념을 습득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과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죽음 개념 이해는 사회 문화적 믿음, 사적이고 감정적인 문제, 종교적 가정과 일반 개념적 이해 모두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1]. 아동의 죽음 개념에 대한 연구는 가장 초보적으로 성인과 아동 사이의 죽음 개념 유사성 정도를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발단되었다[2].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의 죽음 개념 획득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나이, 성별, 발달 단계,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 종교적 믿음, 상실과 관련된 이전 경험들을 죽음 개념 획득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한 것이 그것이다[3-5]. 이러한 관련 요인 중에서 특히 인지적 성숙도와 나이는 죽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6]. 예를 들어 ‘인과성(causality)’과 같은 어려운 죽음 개념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보통 10세를 전후해서 완성된다고 알려져 있다[4].

스피스와 브렌트(Speece & Brent)는 방대한 문헌 검토를 통하여서 아동의 죽음 개념을 구성하는 주요 하위 개념들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4]. 불가역성(irreversibility), 종결성(finality, non-functionality), 인과성(causality), 그리고 필연성(inevitability)이 그것이다. 불가역성이란 인간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삶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이해를 의미하며 종결성이란 죽은 이후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는 생각을 반영한다. 인과성이란 모든 죽음에는 원인이 있다는 의미이며 필연성이란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죽음 개념을 포함하는 죽음에 관한 교육과 토론이 아동 시기부터 필요하다는 이해를 전달하는 연구들은 절대적으로 많다[7-10]. 아동은 죽음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좀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이해하며 죽음에 대한 염려 없이 세계에 적응한다[7]. 나아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죽음 개념을 획득한 아동은 실제로 상실을 경험할 때에 슬픔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오며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한다[8][9]. 특별히 크레이스(Crase)는 죽음 교육과

토론은 아동들에게 삶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길이며 삶의 중요성을 내면화하도록 북돋워 주는 길이라고 역설하였다[10].

더구나 아동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슬픔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인지적 개념 획득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은 죽음 교육과 토론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준다. 강현경, 김성숙(2013)에 따르면 아동 역시 상실 경험을 당했을 때 그 부정적 감정을 밖으로 토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11].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 분출이 그들의 정신 건강을 되찾는 길이며 그들의 신체적 질병까지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교육하거나 이를 아동과 토론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아동의 발달 단계나 아동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과 경험에 관한 문제라고만 할 수 없으며 이를 제시하는 교육 자료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며 자료가 반영하는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먼저 아동에게 죽음을 이해시키고 논의하기 위한 탁월한 자료로서 그림책은 그동안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그림책은 그림 텍스트와 글 텍스트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요소는 상호 보완적으로 아동의 의미 구성에 관여한다[12]. 특히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는 그림 기능의 도움으로 죽음과 같이 어렵고 추상적인 주제도 쉽게 아동에게 접근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13]. 그동안 그림책을 통한 죽음 개념 획득에 관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그림책을 통한 죽음 교육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감정적 불안 효과에 대한 연구도 많았다. 즉, 죽음을 다루는 그림책을 사별을 경험한 아동의 애도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거나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일과 관련지어 논의한 문학 치료적 연구들 역시 하나의 연구의 흐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4-17].

그러나 죽음 토론 자료로서의 그림책이 반영하는 죽음에 대한 세계관이 결코 단순하거나 단일하지 않다는 점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죽음에 대한 관점들이 다양한 만큼 그림책에 반영된 관점 역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고고학자로서 고대 예술

품에 반영된 다양한 죽음 묘사와 관련하여 그 세계관을 4가지 범주로 분류한 웨버(Weber)에 따르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18]. 첫째는 인간이 죽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가거나 사라진다는 관점을 반영하는 원자론적(Atomistic) 죽음관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사람은 죽으면 인간의 전 존재가 부패하므로 영혼에 관한 문제의식을 다루지 않는다. 둘째로 영혼불멸의 죽음관이다. 이 죽음관에 따르면 인간이 죽으면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영혼은 여전히 인간의 주변에 남아徘徊하면서 인간과 소통하거나 관여한다. 셋째로 불가지론의 죽음관이다. 이 죽음관에 따르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충실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후 세계에 관한 믿음이다. 종교를 가지거나 막연하게나마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믿는 세계관은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을 규정하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특징을 가진다.

다양한 죽음관을 담고 있는 그림책은 아동이 소유한 세계관이나 가치관과 같등하거나 조화, 또는 재구조화되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9]. 이러한 발달을 이루어내는 아동의 읽기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림책에 쓰인 글이나 그림의 내용을 해석하여 그 의미를 추론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사전 지식과 과거 경험을 기초로 그림책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과정, 각각의 그림과 글의 의미를 기능적으로 통합시키고 조화하여 전체적인 사건들의 관계를 완성하고 이를 태도로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0]. 따라서 아동들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은 그림책의 저자가 의도했던 완전체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과는 구별되는, 그림책에 대한 해석적 주체가 그림책 내용에 의의를 부여해 가는 과정이라 재정의할 수 있다[21]. 이러한 아동의 문학 반응을 살피는 일은 아동이 각 그림책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탐색하면서 독서를 통해 아동의 삶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사회적 변화를 관찰하는 일이다.

텍스트를 읽을 때 수용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

게 되는데, 텍스트를 자신의 삶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 그 진위를 판단하는 참조적 틀(referential frame)의 읽기 방식과 심미적이고도 장르적 관점에서 문학적 접근을 하는 비판적 틀(critical frame)로서의 텍스트 읽기 방식 모두를 사용한다[22]. 이 중 참조적 틀은 아동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더 비중 있게 사용되는데 이는 갈다와 비치(Galda & Beach)가 아동 독자들은 등장인물의 행동과 감정을 자신과 비교하고 관련시킨다고 설명한 문학 반응 이론[23], 레르(Lehr)가 아동은 그림책 읽기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삶과 그림책 소재를 연결 지어 주제와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보고한 내용과도 일치하는 설명이다[24]. 또한 아동은 이야기를 읽는 동안 이전 경험을 생각해내고 이에 반응하며[25], 그림책의 장르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고[26], 분석적 반응 말고도 그림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심미적 반응, 이전에 읽은 다른 문학과 연관 짓는 반응, 자신의 경험에 적용해 보는 개인적 반응들을 할 수 있다[27].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죽음관이 골고루 반영된 그림책들을 선정하여 이를 아동들과 함께 읽는 과정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아동의 생각과 그 변화를 토의하고 그 반응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의 종교적 가치가 죽음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따라[3-5] 특히 아동의 종교관과 죽음 관련 텍스트 이해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을 우선으로 하되 이외의 발견점들 역시 질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죽음을 다룬 그림책을 읽은 후 아동의 인지적 반응은 어떠한가?

둘째, 죽음을 다룬 그림책을 읽은 후 아동의 사회적 반응은 어떠한가?

셋째, 죽음을 다룬 그림책을 읽은 후 아동의 정서적 반응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기록을 질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란 현장 노트, 토론의 내러티브, 그림의 심층적 분석 등을 포함하는 만큼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들의 심리적 반응을 이해하여 어떤 행동 뒤에 잠재된 이유를 밝히는 연구이면서[28], 참여자가 놓여있는 상황(context) 속에서 그 상황들에 부여하는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하나의 현상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29]. 특히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면담의 성격을 띠는데 네 명 아동의 집중적인 동시 토론 활동이 서로 간의 대화를 자극할 수 있으며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반영하여 구조화되었다[29]. 그리고 이들 대화 내용의 분석은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취한다. Crotty(1998)의 견해에 따르면 해석자에게 의미란 자신의 생각을 이해시키기 위해 화자가 말한 문장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자신의 마음에도 구축하는 데에서 추출된다[31]. 다시 말해 문헌(인터뷰 원문)과 심리적 해석이 균형을 이루는 시공간에서 의미가 발생한다[29]. 일반적으로 인터뷰 연구에서는 원문의 생산과 해석이 동시에 포함되며 연구자(면담자) 역시 그들이 해석하는 원문의 공동 창조자요 협상된 해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때 이들이 전달하는 주제는 말뿐 아니라 그러한 상호주관적 상황 속에서 생산하고 해석하게 되는 제스처와 암묵적인 분위기, 심리적 반응 등이 포괄적으로 개입된다[29].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만 9세 아동이 죽음 그림책을 읽는 과정 중에 드러내는 죽음에 대한 반응들을 깊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령은 10세를 전후하여 죽음 개념이 완전히 습득된다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설정된 것이다[4].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 4명을 편리 및 눈덩이 표집방법을 따라 표집 하였다. 연구 참여자 아동들은 본인의 참여 의사를 먼저 밝힌 후, 부모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참여 아동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이들은 모두 서울 근교의 경기도 지역에 사는 중산층 가정의 아동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그 표집 대상의 성격상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 등의 소외계층에게 적용되기보다 일반 중산층 가정의 일반 아동들의 문학 반응 연구의 성격을 띠다 하겠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가정환경을 포함할 경우, 포커스 그룹의 대상자를 큰 집단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면담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었고 본 연구의 종교적 가정과 텍스트의 죽음에 대한 이해 과정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었다.

그리하여 선정된 참여 아동들은 세부적으로 한 명이 여학생, 나머지 세 명은 남학생이었고, 이들 중 두 명은 기독교인이었으며 나머지 두 명은 무교였다. 아동의 종교관과, 죽음 관련 텍스트 이해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이 본 연구 목적 중 일부이므로 종교를 표집 과정에서 고려하였다. 이들은 모두 상실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조부모의 죽음 경험이 공통적이었다. 조부모 생전 시 동거 여부는 괄호로 제시되었다.

표 1. 참여아동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참여아동	성별	연령	거주지역	상실경험	종교
아동 1	여아	만 9세	경기도	조부, 애완견	무교
아동 2	남아	만 9세	경기도	조부(동거)	기독교
아동 3	남아	만 9세	경기도	조모(동거)	기독교
아동 4	남아	만 9세	경기도	조부(동거), 사촌	무교

2. 그림책 자료

본 프로그램에 사용된 그림책은 [표 2]에 제시되었다. 이들 5권의 그림책은 이란, 현은자 연구(2014)에서 제시된 그림책에 반영된 죽음관에 대한 분류체계와 그 예로 제시된 그림책 중에서 본연구의 참여 아동의 연령에 적합하다고 연구자 간 합의된 책들로 구성하였으며 웨버(Weber)가 제시한 4가지의 세계관이 고루 반영되도록 선정되었다[30].

먼저 <할머니의 죽음>은 불가지론을 반영하고 있는데 할머니의 임박한 죽음을 직감하고 할머니와 손자가 서두르지 않고 이 죽음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그림책은 인생의 끝으로서의 죽음을 인식하고서 남아 있는 삶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삶의 작은 행복감을 누리는 할머니와 손자의 모습을 다루고 있으나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무릎 딱지>는 주인공 인물의 엄마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이 그림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빨간색으로만 그려져 있다. 이는 피를 상징하며 생명의 종결을 의미한다. 이 책 속 아동은 무릎에서 딱지를 일부러 뜯으면서 엄마의 존재를 확인하지만, 엄마가 먼지로 변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을 드러냄으로써 원자론적 죽음관을 견지하였다.

<유령이 된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붉은 뺨>은 모두 영혼불멸 죽음관을 다루고 있다. 두 도서 모두 사별한 할아버지가 아동의 존재 주변에 떠돌면서 아동과 실제적으로 교체하고 서로 비밀을 공유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착한 사람이 가는 나라, 하늘나라>는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다루고 있으며 아동과 엄마의 대화를 통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체계가 전수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위의 도서들은 그림책 전문가 1인으로부터 10세 연령에의 적합성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본 연구를 위하여 4차례 읽기 프로그램에서 읽히고 토론되었다.

표 2. 그림책 자료

그림책	저자	출판연도	죽음관
할머니가 남긴 선물	Margaret Wild/ Ron Brooks	1999	불가지론
무릎 딱지	Charlotte Moundlic/ Olivier Tallec	2011	원자론
유령이 된 할아버지	Kim Fupz Aakeson/ Eva Eriksson	2000	영혼불멸
할아버지의 붉은 뺨	Heinz Janisch /Aljoscha Blau	2006	영혼불멸
착한 사람이 가는 나라, 하늘나라	Maria Shriver /Sandra Speidel	2007	사후세계

3. 연구 절차

참여 아동은 2014년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모두 4차례 한 가정에서 모여 그림책 읽기를 전후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각 차시의 활동은 [표 3]에 제시되

었다. 각 프로그램은 매 회 오후 1시간씩 진행되었고, 한 참여 아동의 가정에서 시행되었다.

이들과 실시한 활동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책 읽기를 전후로, 문장 완성 활동, 연상 그림 그리기, 시 짓기 활동, 독서 토론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문장 완성 활동은 ‘죽음이란 -----’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이다.’ 부분을 채워 넣는 활동이며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아동의 사전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연상 그림 그리기 활동은 총 2차례 진행되었는데 그림책 읽기 활동 전과 후로 각각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그들의 그림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감정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는 시 짓기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그림책 읽기 이후 이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독서 후 토론 내용은 녹취 후 전사되었고 나머지 활동들은 역시 기록되거나 그림의 경우 촬영되어 분석되고 제시되었다.

이들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 연구 윤리를 위하여 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사실과 참여는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원치 않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가 사전에 제공되었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다.

표 3. 각 차시별 활동내용

차시	활동
1 (10월 4일)	문장 완성 활동, 그림 그리기, <할머니가 남긴 선물> 읽기와 독서토론
2 (10월 11일)	<무릎 딱지>, <유령이 된 할아버지>, <붉은 뺨> 읽기와 독서토론
3 (10월 18일)	<착한 사람이 가는 곳, 하늘나라> 읽기와 독서토론, 시 짓기 활동
4 (10월 25일)	그림 그리기, 토론 활동과 정리

자료의 분석은 연구자 2인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두 연구자의 분석 타당도를 위해 다음의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세 가지 차원의 접근을 차용하였다[32]. 이는 세 가지 요소, 즉 상호작용(개인적/사회적), 연속성(과거, 현재, 미래), 상황(물리적 공간 혹은 화자의 공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타당도 확보를 위해 두 연구자 분석 결과의 통합과 반복적 재검토, 동료 연구자에 의한 검토, 추적 감사법

을 사용하였다[29].

구체적으로, Denzin(1989)이 제안한 전기적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따라[33] 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문장, 전사된 토론 자료, 그림 자료 등을 여러 번 검토하고 상호 비교하면서 본 연구 목적과 관련된 진술 등을 추출하여 항목화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타당성 확보에 신중하였다. 다음으로 1차 해석되어 제시된 자료들은 제3의 동료자로부터 분석의 방법과 내용적인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본 연구는 최종 확정된 자료의 분석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 간의 토의를 거쳐 인지, 사회, 정서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항목화하였고 그 구체적 발견점 등을 연구 결과에 각각 포함하였으며 이를 타당성 있게 설명해줄 만한 자료들과 함께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인지적 영역: 종교적 가정의 투영

연구 참여자들은 그림책 내용을 자신의 죽음관에 기초하여 해석하였다. 특히 종교를 가진 아동들은 부활을 믿는 가정에 기초하여 죽음이 결코 고통스러운 사건이 아니라고 대답한 반면, 종교가 없는 아동들은 특히 <착한 사람이 가는 곳, 하늘나라>를 읽으면서 하늘나라의 존재에 의심을 표명했다. 이것은 그림책을 해석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참조적 틀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좋은 내용이잖아요 죽어도 살아나니까.” (아동 2, 토론, 2014. 10. 18)

“사실이 아니에요 가짜 얘기에요.” (아동4, 토론, 2014. 10. 18)

종교가 없는 아동들은 <무릎 딱지>를 더 좋게 평가했는데 그 이유는 이 그림책이 죽음 개념 중 불가역성과 종결성을 더 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무릎 딱지>가 더 사실적이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

게 살아나요 다 끝나는 거지.” (아동 4, 토론, 2014. 10. 11)

연구 참여자들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동 등장인물과 공존하는 <유령이 된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붉은 뺨>을 읽는 경우에 서로 유사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이 이야기들이 두 집단의 종교적 가정과 모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참조적 틀이 아닌, 비판적 틀의 관점에서 파악하려 하였는데 이는 이 이야기를 문학적 효과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22].

“나는 이 책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아이들한테 위로 해 주려고 지은 거라고 생각해요. 만일 내 말이 맞으면 그런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동 2, 토론, 2014. 10. 11)

“저도요. 할아버지가 벽을 통과하고 그런 게 재미있는 한테 말도 안 되지만 그냥 그림책이니까. 재미있게 해주려고 그런 거 같아요.” (아동 1, 토론, 2014. 10. 11)

다시 말하여 그들은 죽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책을 읽을 때 그들의 해석에 있어 참조적 틀과 비판적 틀 모두를 때에 따라 전략적으로 다르게 활용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틀의 전략적 사용은 그림책 이야기를 참여 아동들의 종교적 가정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즉, 아동들은 그림책 내용을 이해하고 그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자신의 종교적 가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만약 그림책 이야기가 자신의 종교적 가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이야기를 자신의 믿음 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다른 읽기 전략을 차용하여 해석하였다. 즉, 자신의 삶을 참조하여 죽음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참조적 틀(referential frame)을 일차적으로 사용하여 글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다가 이것이 자신의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서, 장르적 효용의 관점에서 문학을 바라보는 비판적 틀(critical frame)로 읽기 방식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2. 사회적 영역: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사건으로의 적용

아동들의 이전 경험은 죽음 이야기 해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5]. 모든 참여자 아동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실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상실 경험은 주로 조부모 죽음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들의 그림책 읽기 활동 전 죽음에 대한 이해는 매우 피상적이었다. [표 4]는 이들이 1차시 모임에서 작성했던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표 4. 문장 완성 활동 결과(2014. 10. 4)

참여 아동	문장
아동 1	죽음은 행복하지 않다. 슬프다.
아동 2	죽음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아마 부모님이 먼저.
아동 3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동 4	죽음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끝이다.

이들은 죽음이란 세상에서 사라지는 일이라는 피상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고 자신과는 아직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피상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는 죽음 관련 그림책 읽기 이후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이들은 억압되어 있던 자신의 과거사 관련 부정적 감정들을 타인들 앞에서 좀 더 자유롭게 드러냈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겉으로 표출하는 것은 아동들이 실제로 상실 경험에 마주하거나 경험했을 때 정상적인 삶으로 부드럽게 회복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유익하다[11]. 특히 그림책 읽기를 통해 아동들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던 과거 경험을 떠올리게 되고 그 경험을 토론이라는 관계적 분위기 속에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각각 <무릎 딱지>와 <유령이 된 할아버지>를 읽고 나눈 이야기 일부다.

“나는 엄마가 먼저 돌아가실까 봐 무서워요 내 소원은 우리가 같은 날 죽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책 속의)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는지 알 것 같아요” (아동 1, 토론, 2014. 10. 11)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죽었는데도 계속 같이 살고

싶은가 봐요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머니 꿈 많이 꿔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아동 3, 토론, 2014. 10. 11)

특히 종교적 가정을 소지한 아동들은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해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난 만약 엄마가 죽으면...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슬퍼하겠지만, 울긴 많이 울겠지만, 그냥 금방 그렇게 생각할 거 같아요. 엄마는 더 좋은 곳에 가셨다.” (아동 2, 토론, 2014. 10. 11)

또한 아동들은 비단 자신의 사적인 상실 경험뿐 아니라 사회적 사건들을 떠올리고 이를 논의하였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을 언급했고 이를 그림책 죽음 이야기와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사이프(Sipe)가 제시한 개인적 반응, 그림책 내용에 대한 반응을 포괄적으로 드러낸 것이다[27]. 즉 아동들은 그림책 속 사건을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들에 적용하여 말하였고, 그림책의 내용을 이전에 읽었던 다른 이야기들과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때 난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알았어요. 엄마랑 아빠랑 정말 많이 울었어요 소리치고.. 지금 읽은 <무릎 딱지> 이 책보다 더요. 그때 죽은 언니 오빠들이 우리 엄마 딸이 아닌데도” (아동 1, 토론, 2014. 10. 11)

“저도요. 막 울고 그랬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난 늙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형들도 죽어서. 그 할머니는 어떻게 죽을지 미리 안 거예요? (<할머니가 남긴 선물>)” (아동 4, 토론, 2014. 10. 11)

다시 말하여 이들은 그림책 이야기들을 자신의 과거 경험과 관련지어 타인들에게 표현할 수 있었고 그러한 과정 중에 부정적 감정이 표출되고 정화되었다. 즉 그림책 속 이야기는 아동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감정적인 정화로 표출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이들의 반응은 그림책 이야기, 과거의 특수한 경

힘 그리고 현재 이것을 토론하고 있는 또래 및 교사라는 세 가지 사회적 요소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사적인 상실 경험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었던 죽음과 관련된 큰 사건을 지목하며 당시를 회고하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보고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의 이러한 사회적 반응들은 그림책의 내용과 실제 사건들을 연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었다[27].

3. 정서적 영역: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

죽음 관련 그림책을 읽고 난 후 참여 아동들은 삶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고 최선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비록 죽음 그림책 읽기와 관련 토론은 죽음 자체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도록 하며 삶의 중요성을 내면화하도록 돕는 일이다[10].

먼저 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읽기 활동 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성해졌다. 이러한 이해의 전환은 그들이 읽기 활동을 전후로 하여 그린 그림에서 잘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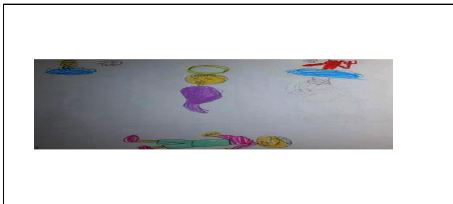


그림 1. 아동 1의 독서 전 그림



그림 2. 아동 2의 독서 전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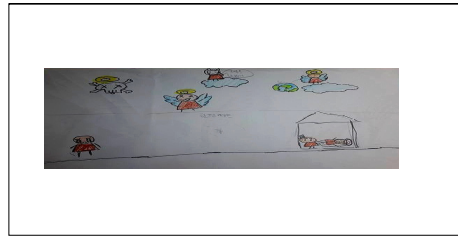


그림 3. 아동 3의 독서 전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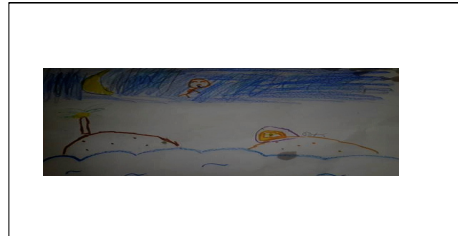


그림 4. 아동 4의 독서 전 그림



그림 5. 아동 1의 독서 후 그림



그림 6. 아동 2의 독서 후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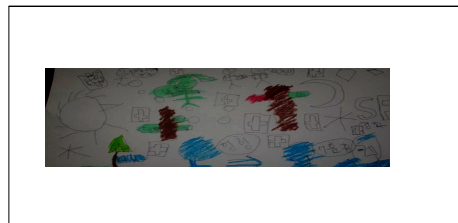


그림 7. 아동 3의 독서 후 그림



그림 8. 아동 4의 독서 후 그림

아동들이 첫 시간에 그린 그림들은 죽음에 대한 공통적이고도 피상적인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아동 1-4 그림, 2014. 10. 4) 먼저 바닥에 한 명의 죽어가는 이가 누워 있고 그 위로는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늘에는 천사와 악마로 대비되는 두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혼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적이고도 피상적 이해는 독서와 토론 활동을 거친 후 다양하게 변모되었다(아동 1-4, 그림, 2014. 10. 25).

예를 들어, 아동 1의 경우 한 사람이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자신의 끝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한 존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이는 삶에 대한 그들의 감수성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들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아동이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나타난다.

“갈림길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천국이든 지옥이든,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아동 1, 토론, 2014. 10. 25)

[그림 6]의 경우, 죽음보다는 살아 있는 한 아동의 미래가 그려져 있고 그 아동은 “나라도 살아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그림은 이 아동이 죽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삶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였음을 드러낸다.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 있어요 아직 어려요”(아동 2, 토론, 2014. 10. 25)

무엇보다 이들의 두 번째 그림은 독서 전 그려진 그림보다 훨씬 많은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었고, 개인화된

상상력이 발휘된 세부 묘사가 드러났으며 이전 그림들보다 그림에 사용된 색깔도 밝아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들이 죽음을 다루는 그림책을 읽고 삶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생겼으며 자신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최선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다만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시 짓기 활동에서도 나타났다. 이들의 시에는 그림책 읽기 활동을 통해 획득된 죽음에 대한 상징의 활용(아동 3),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나 궁금증(아동 2), 삶과 죽음 전반에 대한 개인적 이해가 반영되었으며(아동 1)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가 함축되어 있었다(아동 4). 이들의 시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아동들은 그림책 읽기와 토론 과정을 통해 그 정서적 영역에서 죽음의 의미와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하여 신중하게 탐구하는 모습을 드러냈으며 무엇보다 삶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는 태도로 변화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표 5. 시 짓기 활동 결과(2014. 10. 18)

참여 아동	시
아동 1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다.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 슬픔이다. 크게 울어라. 편안해질 것이니.
아동 2	살이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죽음은 내가 죽었다는 것 나는 죽음 이후 가는 곳을 안다. 그러나 갈 수 있을까?
아동 3	살아 있다면 무릎 딱지를 떼지 말아라. 엄마는 살아계시다 아마도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라.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아동 4	저 세상에 가서 즐겁게 놀자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오래 더 살아야 한다. 오랫동안 열심히 살자. 은 맘으로 우리의 삶을 즐기자.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죽음 이해와 그 반응을 죽음을 다루는 그림책 읽기 과정과 그 관련 활동을 통해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만 9살 아동 참여자 4명이 한 참여자 가정에서 4회에 걸쳐 모여서 그림책 읽기와 관련 활동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이 기록되어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아동들의 이야기 이해에 각자의 종교적 가정이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만약 이야기가 자신들의 믿음 체계나 종교적 가정과 맞지 않은 경우, 그들은 다른 해석 전략을 사용하여 이를 자신의 사고 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읽기 방법을 차용하였다. 즉, 텍스트가 자신의 믿음체계와 부딪힐 경우, 참조적 틀(referential frame)로서의 읽기 전략을 버리고 문학적 효용을 평가하는 비판적 틀(critical frame)로서의 읽기 방식을 택한 것이다

또한, 참여자 아동들은 그림책 이야기를 통해 죽음 관련 기억들을 상기하고 자신의 상실 경험과 사회적 사건에 그 이야기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 중에 자신의 부정적 감정이 표출되고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보고할 수 있었다.

나아가 아동들은 도서를 읽고 난 후 죽음 자체에 몰입하기보다 오히려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는 죽음 관련 도서들이 참여자 아동들에게 마지막을 인식하도록 돕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주어진 삶을 향한 열정을 표현하도록 돕고 최선으로 자신의 삶을 살도록 독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죽음과 관련한 그림과 시 짓기 활동 모두에 있어서 독서하는 동안 전개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발전적이고도 세부적으로 반영되었고 읽기 활동 이후의 그림에서 보다 밝은 색깔이 표현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교육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죽음 관련 그림책의 활용은 주어진 삶의 끝을 인식하면서 현재의 삶을 보다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독서가 장려되어야 한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아동의 교육 영역에서 피해야 할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토론에 활용해야 하며 아동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주제로서 추천된다.

둘째, 죽음 관련 그림책의 활용과 토론 과정은 아동의 과거 상실 경험을 드러내고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 효과를 경험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소중한 존재의 상실 경험은 특히 아동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부정적 감정은 반드시 표출되어 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죽음 관련 그림책은 아동들의 독서 전략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독서 토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동의 믿음 체계나 가치관과 깊이 관련된 주제일수록 이들의 독서 전략의 활용은 좀 더 역동적으로 관찰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죽음 관련 그림책의 교육적 활용은 이들의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읽기 전략의 근본적 양태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연구적 가치를 가진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V. Slaughter,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ath," *Australian Psychologist*, Vol.40, pp.179-186, 2005.
- [2] B. L. Kenyon, "Current Research in Children's Conceptions of Death: A Critical Review," *Omega*, Vol.43, pp.63-91, 2001.
- [3] B. Kane, "Children's Concept of Death,"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134, pp.141-153, 1979.
- [4] M. W. Speece and S. B. Brent,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ath: A Review of Three Components of a Death Concept," *Child Development*, Vol.55, pp.1671-1686, 1984.
- [5] H. Wass, *Helping Children Cope with Death*, Washington, DC: Hemisphere Publishing Corp., 1991.
- [6] M. M. Mahon, R. L. Goldberg, and S. K. Washington, "Discussing Death in the Classroom: Beliefs and Experiences of Educators and Education Students," *Omega*, Vol.39, pp.99-121, 1999.
- [7] V. Slaughter and M. Griffiths, "Death Understanding and Fear of Death in Young Children,"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12, pp.525-535, 2007.

- [8] B. Ward, *Good grief*,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1993.
- [9] P. Westmoreland, "Coping with Death: Helping Students Grieve," *Childhood Education*, Vol.72, No.3, pp.168-190, 1996.
- [10] D. Crase, "Death Education's Quest for maturity," ERIC No. ED214489, pp.1-14, 1982.
- [11] 강현경, 김성숙, "유아의 애도과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0권, 제2호, pp.325-345, 2013.
- [12] 현은자, 김세희, *그림책의 이해*, 사계절출판사, 2005.
- [13] R. Lee and E. Hyun, "A Case Study: Explori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ath and their Attitude towards Life with Picture Books," End Conference, 2015년 6월 27일.
- [14] 양진희, "문학적 접근을 통한 죽음 개념교육이 유아의 죽음에 대한 인식 및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 제12권, 제4호, pp.49-74, 2007.
- [15] 이찬숙, 조메리명희, "그림책을 활용한 죽음교육이 유아의 죽음개념 및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권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pp.417-437, 2009.
- [16] A. M. Wiseman, "Summer's End and Sad Goodbyes: Children's Picture Books about Death and Dying,"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Vol.44, pp.1-14, 2013.
- [17] C. A. Corr, "Bereavement, Grief, and Mourning in Death-related Literature for Children," *Omega*, Vol.48, No.4, pp.337-363, 2003-2004.
- [18] F. P. Weber, *Aspects of Death and Correlated Aspects of Life in Art*, Epigram and Poetry, London: Lewis, 1922.
- [19] C. Snow and A. Ninio, "The Contracts of Literacy: What Children Learn from Learning to Read Books. In W. H. Teale and E. Sulzby, (Eds.)," *Emergent Literacy: Writing and Reading*, pp.116-138, Norwood, NJ: Ablex, 1986.
- [20] 박나은,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 수준에 따른 그림책에 대한 반응*,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
- [21] K. J. Vanhoos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Zondervan, 2009.
- [22] E. Katz and T. Liebes, "Mutual Aid in the Decoding of Dallas: Preliminary Notes from a Cross-Cultural Study," In P. Drummond and R. Patterson (Eds.), *Television in Transition*,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pp.187-198, 1985.
- [23] L. Galda and R. Beach, "Response to Literature as a Cultural Activity,"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36, No.1, pp.64-73, January/February/March 2001.
- [24] S. Lehr, "Literature and the Construction of Meaning: the Preschool Child's Developing Sense of Theme,"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Vol.5, No.1, pp.37-46, 1990.
- [25] L. M. McGee, "Exploring the Literature-based Reading Revolution," *Language Arts*, Vol.69, pp.529-537, 1992.
- [26] 강은진, 현은자, "환상그림책과 사실그림책에 대한 유아의 반응 비교연구 - 소집단 그림책 읽기 활동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Vol.19, No.1, pp.169-182, 1998.
- [27] L. R. Sipe, "The construction of Literary Understanding by First and Second Graders in Oral Response to Picture Storybook Read-alouds,"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35, No.2, pp.52-275, 2000.
- [28] N. Lyons and V. K. LaBoskey, *Narrative Inquiry in Practice: Advancing the Knowledge of Teaching*,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2002.
- [29]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I*, 아카데미프레스, 2012.
- [30] 이란, 현은자, "죽음 교육 자료로서의 그림책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신앙과 학문*, Vol.19, No.4, pp.135-167, 2014.
- [31] M. Crotty, *The foundations of social research: Meaning and perspective in the research process*, London: Sage, 1998.

[32] D. J. Clandinin and F. M. Connelly,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33] N. K. Denzin, Interpretative interactionism, Newbury Park, CA: Sage, 1989

저 자 소 개

이 란(Ran Lee)

정회원



- 1994년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문학사)
- 2003년 : Univ. of Edinburgh(교육학석사)
- 2014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아동문학콘텐츠, 아동미디어콘텐츠, 미디어리터러시

현 은 자(Eunja Hyun)

정회원



- 1982년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문학사)
- 1984년 : Eastern Michigan Univ.(문학석사)
- 1988년 : Univ. of Michigan(교육학박사)

▪ 1989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문학교육, 아동미디어리터러시, HR(Human-Robot Interaction)